

# 삼성석유화학, 생산 · 공무 재택근무

인터넷 통해 공장 가동상태 확인 시스템 구축 ... 2004년 50억원 절감

삼성석유화학(대표 허태학)이 자체 개발한 공정운전정보(Production Management System)을 6월부터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장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삼성석유화학은 공장운영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석유화학공장을 공장자동화를 통해 미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는 생산부장과 공무팀장도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작업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공장자동화에는 최근 5년 동안 130억원 정도를 투입했다.

울산공장의 1단지, 2단지, 3단지 중앙통제실을 통합운영시스템으로 바꿨고 공정마다 최적상태를 찾아가는 시스템을 깔았다.

또 품질을 일일이 분석실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현장에서 운전원이 바로 분석해 통제실로 결과를 보내는 현장분석 자동화 시스템도 설치했다.

이를 통해 2004년 5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2005년 초에는 중국 상하이 부시장이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5월에도 합작기업인 BP의 미국 쿠퍼리버 공장 책임자와 실무진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돌아갔다.

삼성석유화학은 “자동화 시스템 설비로 세계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플랜트 중 시설유지 기능이 최고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8/12>